

충주호암동 출토관재의 수종 및 연륜분석

김상규¹, 박원규¹, 한상효²

¹충북대 산림과학부, ²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 분석 대상

충주박물관에서 발굴한 충주 호암동 민묘에서 출토된 목관 2기 (합장묘: 할머니관, 할아버지관)로 부위별로 엔진톱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수는 총 17점으로 모두 소나무 이었다.

표 1. 분석대상시료

		시료명	시료수(점)
할 아 버 지 관	내 관	오른쪽 측판	1
		머리판	1
		아래판(밑판)	1
	외 관	왼쪽측판	1
		관뚜껑	1
		오른쪽 측면판(상·하)	2
		아래판(밑)	2
		소계	9
할 머 니 관	내 관	머리판	1
		발판	1
	외 관	오른쪽 측판	3
		머리판(위·아래)	2
		관뚜껑	1
		소계	8



그림 1. 할아버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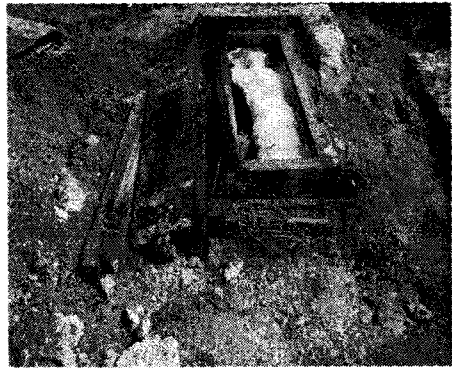


그림 2. 할머니관

2. 분석결과

할아버지 관재의 나이테 시작연도는 1433년(CJGF003B)이고 마지막 벌채연도는 1628년(CJGF013B)이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 관재는 1628년 여름에 벌채된 목재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 관재는 시료의 시작연도가 1422년(CGM001A)이었고 마지막 연도는 1606년(CGM007A, CGM0108A)이었다. 할머니 관재의 시료는 대부분 치목이 많이 되어 수피부분이 없어서 벌채연도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료 CJGM007A의 수령이 135년 이상이고 변재수도 31개 포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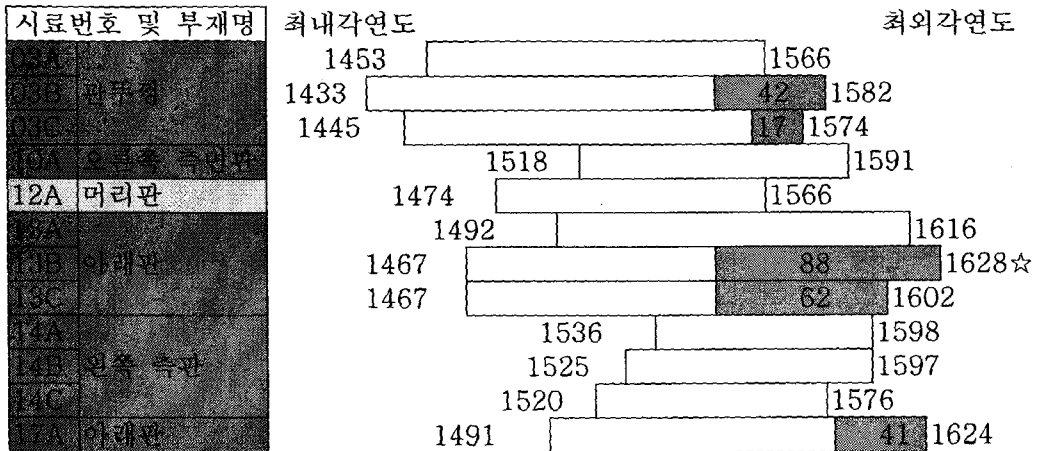


그림 3. 할아버지 관재의 절대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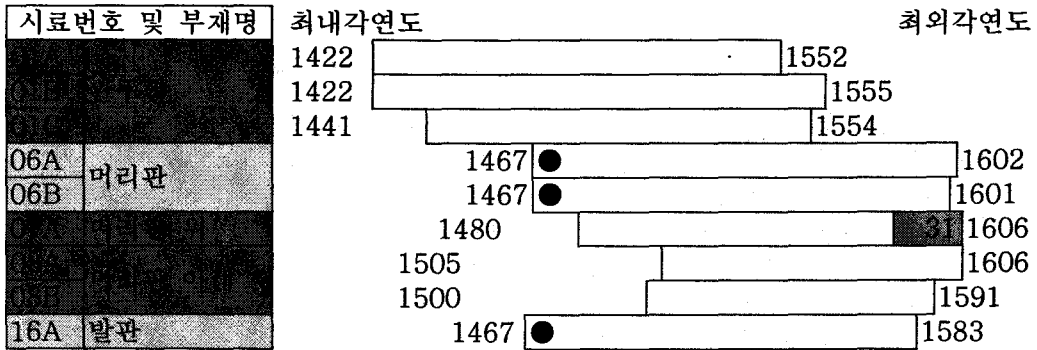


그림 4. 할머니 관재의 절대연도

내관
 외관
 변재량

●는 수를 가지는 목부재이다. ☆는 수피가 있으면서 마지막 연륜의 조재가 형성되어있는 것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늦봄에서 여름사이가 벌채시기임을 말해준다. ☆ 또는 ★표시가 없는 부재는 치목에 의해 목재의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정확한 벌채연도를 알 수 없고 최소한 마지막 나이테의 생육연도 이후에 벌채된 것을 말해준다.

심·변재량의 통계를 토대로 할 때 35±8개의 연륜이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할머니관의 벌채연도는 심·변재 통계의 오차를 고려해주면 1641년±8년에 벌채된 목재로 제작된 것으로 산출되었다.

1480년	1575년	1606년	1641년
심재		-8년	+8년
CJGM007A(할머니관재)		손실된 변재수	

이상의 결과로 봐서 할아버지 관재는 1628년 직후에 제작되었고 할머니관재는 할아버지 관재보다 최소 5년(1633년)에서 최대 21년(1649년) 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